

# 牛峯李氏大宗報

發行人兼編輯人：李萬寧  
 主 幹：李丙泰  
 發 行 處：牛峯李氏大宗會 02)753-6340~1  
 서울시 중구 무교동 33-1 무교빌딩5층  
 http://woobonglee2000.hihome.com  
 印 刷 處：신오성기획인쇄사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 2002년 정기총회 개최

# 총회일자 및 집행부 명칭 개정

만녕 회장 장학금제도 구상과 지역문종과의 유대강화 다짐  
 萬用일가 등 일년간 문종일에 헌신한 일가 표창

지난 11월 3일 오전 10시 2002년도 정기 총회가 서울특별시 중구 장교동에 위치한 한화 빌딩 28층 대식당에서 성대히 개최하였다.

식은 먼저 만녕 회장의 개회선언에 이어 명중 감사의 사회로 시조 문경공 墓所望拜(묘소방배)와 "우봉인이어 영원하라"(茂原 詩 낭독 範東) 시 낭송에 이어 일년간 감사에 헌신적으로 일한 7명(德用, 峻茂, 應寧, 丙煥, 茂潤, 茂榮, 龍茂)의 공로패 수여와 회장 식사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만녕 회장은 '그 동안 세보편찬에 헌신적으로 편찬에 임해주신 편찬위원님들과 이 작업에 참여해주신 종중 여러분에게 감사한다'고 전제하고 지역 종회와의 원활한 유지와 세보편찬을 통해 얻게 되는 이익과 뜻 있는 일가 여러분의 성금을 모아 대종회 차원에서 장학금을 마련하여 농어촌과 지방의 어려운 형편에 있는 집안의 자녀들 가운데서 대상자를 선별하여 형편이 허락하는 대

로 한 두 명에게라도 장학 사업을 시작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어 병태 사무총장의 세보 편찬 경과보고와 태녕 감사의 2002년도 결산 및 감사보고(별첨 참조) 그리고 대종회 규약중 집행부 조직 명칭의 개칭과 총회일자를 개정하는 제안서(병태 사무총장)에 이어 제안 안 그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다. 개정안은 대종회 집행부의 도유사를 사무총장으로, 장재유사를 재무담당역으로, 유사를 세분화하여 종무담당역, 기획담당역, 홍보/섭외 담당역으로 전문화 되어가는 현대적 행정 체제로 개정하는 것과 시조공의 시제 일인 음력 10월 1일을 기준으로 직전 일요일로 되어 있는 것을 직전 10일 내에 회장이 일자와 장소 시간을 정하여 10일 전에 종인에게 통보 한다"로 개정하는 것이었다. 이어 철형 재무담당역의 공지사항을 발표한 후 종인간의 인사와 환담을 나누는 시간으로 총회는 폐회하였다. 특히 과학기술부 차관인 升九(감찰공 문종 자손) 종인의 인사가 있어 이채로웠다.

보/섭외 담당역으로 전문화 되어가는 현대적 행정 체제로 개정하는 것과 시조공의 시제 일인 음력 10월 1일을 기준으로 직전 일요일로 되어 있는 것을 직전 10일 내에 회장이 일자와 장소 시간을 정하여 10일 전에 종인에게 통보 한다"로 개정하는 것이었다. 이어 철형 재무담당역의 공지사항을 발표한 후 종인간의 인사와 환담을 나누는 시간으로 총회는 폐회하였다. 특히 과학기술부 차관인 升九(감찰공 문종 자손) 종인의 인사가 있어 이채로웠다.



대종회 정기총회 2002년 11월 3일 우봉이씨 대종회 총회가 서울시 중구 장교동 1번지에 위치한 한화빌딩 28층 대식당에서 개최하였다.

### 장학 기금 내주신 일가

|         |             |
|---------|-------------|
| 萬寧(회장)  | 10,000,000원 |
| 淸寧(부회장) | 1,000,000원  |

### 찬조금(2002년 대종회 총회) 일가

|                  |            |
|------------------|------------|
| 永慕堂 종친회(회장 玆茂)   | 100,000원   |
| 경주화수회(회장 찬녕)     | 100,000원   |
| 문경화수회(회장 世寧)     | 100,000원   |
| 萬寧(회장)           | 1,300,000원 |
| 秉茂(부회장)          | 1,000,000원 |
| 昌茂(부회장)          | 200,000원   |
| 丙泰(사무총장)         | 100,000원   |
| 喆衡(재무담당역)        | 100,000원   |
| 丙秀(종무담당역)        | 100,000원   |
| 昇寧(종무위원)         | 100,000원   |
| 丙國(종무위원)         | 200,000원   |
| 丙德(부회장)          | 200,000원   |
| 丙惠(종무위원)         | 1,000,000원 |
| 學九(부회장)          | 100,000원   |
| 泰寧(감사)           | 100,000원   |
| 德用(지평공 종회장)      | 300,000원   |
| 萬寧(종무위원)         | 50,000원    |
| 昌茂(종무위원)         | 100,000원   |
| 長寧(의령공 논산)       | 300,000원   |
| 世寧(종성군 문종 천안)    | 100,000원   |
| 升九(과학 기술부 차관)    | 300,000원   |
| 根衡(종무위원)         | 300,000원   |
| 根寧(종무위원)         | 100,000원   |
| 鼎茂(참판공 문종)       | 200,000원   |
| 正茂(참판공 문종)       | 100,000원   |
| 範瑞(종무위원)         | 100,000원   |
| 합계               | 6,650,000원 |
| 丙天(종무위원) 가훈(족자용) | 2점         |

### 세보 구입희망 일가 신청접수

대종회에서는 그동안 예약일가에 한에서 보급했던 2002년도판 세보를 새로 구입할 일가를 위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요령은 대종회 02)753-6340~1 혹은 FAX 02)753-6342(재무담당역 철녕)로 신청하면 지로용지(대금납부용)를 우송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종인이 구매한 세보는 2,124질(기중본 제외)로 당초 배포계획보다 많은 세보가 판매되었습니다.



株式會社 光 一  
 KWANG IL CO. LTD.

代表理事 社長 李 萬 寧

본 사 :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 112-2  
 Head Office : #112-2, Hankang Ro 2 Ga,  
 YongSan-Ku, Seoulc Korea  
 TEL : 02)796-0321~4, 797-0321~3  
 FAX : 02)796-0325

부산사무소 : 부산시 남구 문현4동 815 한일오피스텔 1411호  
 TEL : 051)645-0321~2 FAX : 051)632-0323  
 아산 공장 : 충청남도 아산시 풍기동 226  
 TEL : 041)542-2555~7 FAX : 041)542-2558  
 Homepage : www.kwangil.co.kr

총회 때 마다 참석일가 중 제일 연장자를 선별하여 기념품을 증정했던 年高行尊(연고행존) 일가가 금년에는 茂淵(무연 참판공문종 1921. 5. 13.생)일가가 해당되어 기념품으로 전기담요와 금 30만을 받았다. 그런데 무연씨는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오산동 224번지가 고향으로 현재 경기도 안성군 금산동 130-4에서 거주하고 있다.

**공로 패 수장자 공적**

**문경중중 부회장 峻茂**  
(준무 1932. 9. 5.생)

은 문경시 가은읍 작천리에서 살면서 송모사상이 단독하여 항상 일가의 혼상례를 비롯한 문중사에 숭선수범하는 모범을 보여 지역문중발전에 크게 공헌하여 왔다. 특히 2002년 상반기에 13세 祖妣(조비) 商山金氏(상산김씨)묘소 정비시에 앞장서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데 일조하여 종인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사직공파 보령 중회장 應寧**

(덕녕 1950. 2. 3.생)

일가는 보령군 주산면 창암리에서 1999년 중회장으로 취임한 이래, 송모사상이 단독하여 항상 종제의 증식은 물론, 선조송모비 건립 등 문중사에 숭선수범하는 모범을 보여 지역문중발전에 크게 공헌하였다. 특히 2002년에 발간된 세보편찬에 있어 문중 수단작성에 일조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데 종인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감찰공파 음성 중회장 丙堯**

(병소 1948. 8. 6.생)

충북 음성군 음성을 행제2리 52번지에서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음성군 감찰공 문중 중회장으로 있으면서 송모사상이 단독하여 항상 종제의 증

**年高行尊(연고행존) 및 유공일가 공로패 수여**

식은 물론, 선조송모비 건립 등 문중사에 숭선수범하는 모범을 보여 왔다. 특히 2002년 하반기에 문종의 迹(술 19世)공 이후 26세까지의 선조 191기의 유해를 모시는 남골당을 만들어 현대지역사회발전에 일조하여 종인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김포 강화중중회 총무 茂濶**

(무윤 1942. 3. 30.생)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개곡리에서 농촌 지도자로 1980년부터 총회 총무로 취임한 이래, 송모사상이 단독하여 항상 종제의 증식은 물론, 선조송모비 건립 등 문중사에 숭선수범하는 모범을 보여 지역문중발전에 크게 공헌하였다.

집성촌의 선조묘소 공원화 사업에 일조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데 종인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대시간공파 가평중회 前總務 茂榮**

(무영 1938. 7. 25.생)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염소리에서 살면서 1999년 중회장으로 就任한 이래, 송모사상이 단독하여 항상 종제의 증식은 물론, 선조송모비 건립 등 문중사에 숭선수범하는 모범을 보여 지역문중발전에 크게 공헌하여 왔다. 특히 2002년에 발간된 세보편찬에 있어 문중 수단작성에 일조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데 종인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의열공파 대중회 중무담당역 龍茂**

(용무 1945. 10.30.생)

서울시 중구 신당 6동840번지에서 태어나 1999년 대중회 유사로 취임한 이래, 송모사상이 단독하여 항상 숭선 수범하는 모범을 보였으며 대

중회발전을 위해 크게 공헌하였다. 특히 대중회 임무수행뿐만 아니라 청주 등지의 의열공문중의 위선 사업에 앞장서서 헌신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선봉적 역할을 하고 있다.

**지평공파 중중회장 萬用**

(만용 1927. 11. 19.생)

인천시 부평구 갈산2동 378번지에서 사업을하고 있는 지평공파 중회장으로, 송모사상이 단독하여 항상 종제의 증식은 물론, 파조묘소 및 송모비를 비롯한 선조묘소 등을 자비로 가꾸는 등 종사에 숭선수범하는 모범을 보이는 등 지역 문중발전에 크게 공헌하여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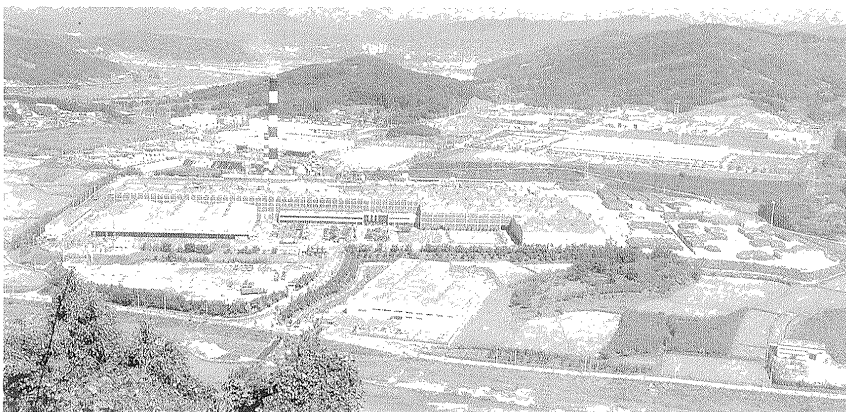
특히 2002년에 발간된 세보편찬에 있어 문중 수단작성에 일조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데 종인들에게 귀감이 되었다.



일년간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한 일가들에게 만녕 회장이 감사패를 증정하고 집안의 발전을 다짐했다. (좌로부터 무윤, 영무, 준무, 만녕회장, 덕녕, 병소, 만녕 일가들)



만녕 회장이 공로가 많은 일가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아세아제지 청원공장 전경

국내 최고수준의  
우수한 제품만을 공급하고 있는  
아세아제지주식회사-제지사업을 통해  
삶의 필요로움을 제공합니다.

본 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26(아세아타워)  
TEL : (02)527-6875 FAX : (02)527-6859

청원공장 : 충북 청원군 부용면 금호리 501  
TEL : (043)270-7800 FAX : (043)275-5497

김해공장 : 경남 김해시 안동 386  
TEL : (055)333-5611-4 FAX : (055)333-5615

부산영업소 : 경남 김해시 안동 386  
TEL : (055)332-0221 FAX : (055)332-9612

대구영업소 : 대구광역시 서구 내당동 220-14(아세아빌딩 8층)  
TEL : (053)562-0666-7 FAX : (053)563-11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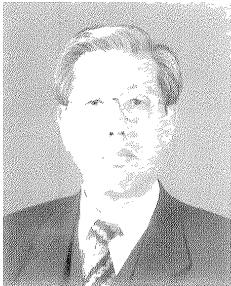
대전영업소 : 충북 청원군 부용면 금호리 501  
TEL : (043)270-7771-4 FAX : (043)270-7860

홈페이지 : www.asiapaper.co.kr



# 장학제도제정 뜻 밝히고 협조당부

## 만녕 회장 농어촌 자녀를 위한 장학기금 모금 운동전개 논의



만녕 회장

지난 12월 5일, 2002년 마지막 한해를 장식하는 중무위원회가 대총회사무

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는 먼저 “올해는 세보편찬 발간이라는 대역사를 마무리지은 한해로서 희망찬 새해가 될 것을 다짐하면서 새로운 계획이 기다리는 뜻깊은 의의가 있다”는 만녕회장의 인사에 이어 병태 사무총장의 총회 경과 보고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이 총장은 총회 장소 예약문제가 까다롭고 식당을 회의장소로 사용하다보니 이중으

로 경비가 든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즉 상용 예식장 같으면 비용이 필요없는 장소 사용료(50만원), 앰프실치비(35만원) 등등을 절감할 수 있는 부문이 발견되었고 말하고 다음부터는 전생기념관 같은 상용예식장 장소를 물색하여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총회 끝난 후 진행과장에서 일기간의 자금임을 심어 주기위해 상호 상견례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하자는 청장년회 건의가 있었다. 이 건의에 따라 앞으로는 대총회 임원 및 중무위원 청장년회 임원 그리고 지방 화수회장 및 총무 등 종친일일 수고가 많은 일가들의 특별한 인사를 나누도록 해야겠다는 자체 평가를 했다. 이어 철형 재무담당역의 정기총회 수입 지출현황과 세보판매 현황 그리고 신년도 대총회 운영예산안 설명이 있었다.

이날 중무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덕녕 홍보/섭외 담당역은 총회에서 전년도에 비해 참석인원이 감소된 원인분석을 하여 대책을 세워 식수인원과 차이에 생기는 회비 문제도 재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탁 위원은 세보가 4권이나 되어 자신들의 이름을 찾기가 어렵다고 말하는 일가가 있어 지권(智權) 부록 색인표를 활용하도록 종인들에게 흥

# 4/1분기 중무위원회 개최

## 사례편람 제출판, 고문 및 중무위원 등 위촉

지난 3월 14일 1/4분기 중무위원회가 대총회 사무실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는 회장 인사에 이어 고문에 전 해병대사령관이었던 병문(김철공 문중)예비역대장과 중무위원으로 병수(김철공 문중)씨를 추가로 위촉했다.

특히 이날 논의된 중요안건으로는 고서 전문출판사인 명문당(사장:김동구)에서 요청해온 사례편람의 재판발행은 2,000부

기준발행 때마다 대총회에 발전기금(1,000,000원)을 납부하는 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다.

한편 농재공 문중 계대정정을 요구한 문제는 진지한 토의 끝에 보관용한정판으로 재수정 인쇄하고, 공중처리 등 6개항중 2개항(일간지 정정보도 등)은 농재공 문중에서 철회하겠다는 답변(태녕 박사)으로 일단락되었다.

보활동을 전개 할 것을 건의하였다.

이날회의에 참석한 중무위원은 다음과 같다.

만녕(회장) 순녕(부회

장) 병태(사무총장) 철형(재무) 병수 용무(총무) 덕녕 무상(섭외/홍보) 각 담당역, 병국 범서 근영 무탁 인녕 무학(중무위원)

# 임원 및 회원 상호인사 기획 등 미련을 건의

## 총회 후 청장년회 임원회의에서 의견제시

총회를 마치고 청장년회(회장 창무)는 각종 행사 및 업무수행에 따른 청장년회 회의를 개최하고 행사에 따른 청장년회의 활동에 대하여 회의를 가졌다.

병탁 부회장 주제로 열린 회의에서 병태 사무총장은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협조로 총회를 대과 없이 무사히 마칠 수 있다고 인사를 하고 장차 대총회의 주인이 되어야 할 여러분들의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특히 대총보발행에 대하여 일가들이 많은 관심을 두고 있어 청

장년회가 많은 소식을 제공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청장년회 임원들은 총회에서 일가들이 친목을 다지기 위해 인사소개 등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행사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여 줄 것을 제안하는 대총회 총회 및 발전을 위한 많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날 총회시 안내 및 진행에 애써준 임원은 다음과 같다.

병남(부회장), 범탁(부회장), 선녕, 범택, 태녕, 해녕, 무준, 창무, 수녕, 해무 등 각 운영위원



신년하례회에서 창무 청장년회장이 청장년회 임원을 소개하고 있다. (좌로부터, 만녕, 범탁, 무석, 총범, 재무, 병수, 방무, 창무, 무상 씨)



신년하례회에 참석한 대총회 회장단과 청장년회 임원이 한자리에 환담을 나누고 있다.

지난 4/4 분기 중무위원회에서 만녕회장은 대총회 장학제도 설치를 밝히면서 이 사업의 실현을 위해 1억원을 내 놓겠다고 밝혔다.

대총회가 장학제도를 마련하자는 구상은 이미 80년대 수녕 변호사가 8대 대총회 회장으로 부임하면서 취임사에서 밝힌 바 있었으나, 워낙 자금이 없고 사무실조차 없던 시점에서 희망사항으로 그쳤으며, 그 이전 서봉 회장이 사임하면서 대총회에 기금조성을 위해 1천여 만원을 회사하여 답십

리에 보잘 것 없는 독립가옥을 장만했을 뿐, 대총회의 발전적인 사업을 한다는 것은 꿈으로 그치고 말았던 것이다.

# 논단 장학제도의 설치와 종인들이 할 일

그러나 다행히 2000년도에 들어서면서 세보편찬을 위한 사무실 마련 등 대역사의 사업이 시작되고 만녕 회장이 부임하면서 농어촌에서 어려운 형편으로 살아가는 일가 자녀들을 돕겠다는 취지

를 밝히면서 종인의 성금으로 사무실을 마련하고 2년 9개월 동안 세보 편찬사업이 전개되었다. 이에 따라 세보편찬이 끝나

면서 1억여 원의 자산이 형성되었고 이를 계기로 만녕 회장이 장학제도 설치를 위해 1억 원을 내놓겠다는 발표로 세보편찬에서 남은 1억 원과 일가들의 성금 1억 원 등 3억여 원으로 대총회는 장학

제도를 운용한다는 3개년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다. 개인으로 1억 원을 내놓는다는 것은 대단한 결심 아니면 어려운 일이다.

지난 4/4분기 중무위원회에서 이런 뜻을 밝히자 주변에서는 대단한 일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놀라면서 격찬하고 있다.

지금은 아득한 이야기가 될 줄 모르지만,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

이 대총회에서 보람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긍지와 자존심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이런 보람된 일도 우뚝이 솟아올라 일가들이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없다고 본다. 이제 우리 종인들은 대총회가 전개하려는 장학사업에 동참하여 자라나는 우리 후손들이 자신을 갖고 사회에 나가 보람된 일을 하는 일꾼이 되도록 뒷받침을 만들어 주는 어른이 되도록 노력해주는 뜻을 펴는 마음을 간절하게 부탁드린다.





# 산업 및 교육발전에 기여한 뜻 기려

## 고 瑞峯 東寧선생 10주기 엄숙히 거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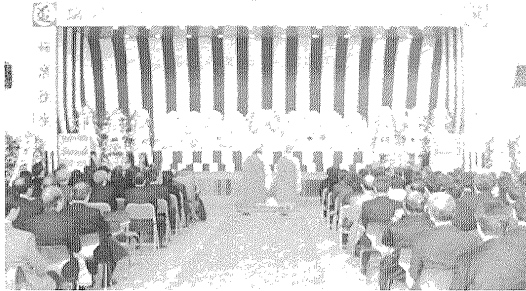
오전 10시 서봉 동녕선생의 10주기 추모행사가 지방유지를 비롯한 많은 일가친척 및 관계 내빈이 참가한 자리에서 엄숙히 거행되었다.

추도식은 먼저 인녕(우봉이씨 대종회 총무위원) 유사가 집전하는 제례를 시작으로 추도식순서로 진행되었는데 김동렬 아세아 시멘트(주)사장은 조사를 통해 지역발전 뿐만 아니라 한국산업계와 학계 및 정치분야 등에서 두각을 나타낸 어른이었다고 추모하였다. 또한 손장평 문창고등학교장은 교육기관이 없던 문경지역에서 자라나는 청소년을 위한 사학교육기관을 세우고 영남대학재단까지 마련하는데 평생 헌신하였다고 말했다.

그런데 고 서봉선생은 1905년 문경에서 태어나

1993년 타계하기까지 봉명 광업소를 창업한 후 시멘트산업을 비롯한 목축업 등 한 때는 11개의 기업을 일궈 봉명 그룹으로 발전하였으며, 특히 사학재단을 설립 문경여자중학교를 시작으로 문창고등학교 등을 창설한 문경학원 재단과 영남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이사장을 역임하였다. 한편 문경에서 4, 6, 7대 국회의원으로 활약하여 문경지역사회는 물론, 우리나라 산업분야의 선두주자로 두각을 나타냈다. 말년에는 봉명그룹 회장을 역임하였는데 정부에서는 산업부장 석탑장, 국민훈장 동백장, 봉황장과 부산대학에서는 경제학 명예 박사학위를 수여했다.

88세를 일기로 타계한 서봉은 박경월여사 사이에 세무, 병무, 승무, 운무 등 4남 2녀를 두었다.



고 서봉 이동녕 전 대종회장의 10주기 추모식이 문경 문창고등학교에서 엄숙히 거행되었다.

# 세보편찬위원회 업무 대종회에 인계 총 수입금 중 1억원을 장학기금 조성에 총당예정

지난 1월 17일 대종회에서는 세보편찬 업무가 종결됨에 따라 대종회와 세보편찬위원회간 사무 인계인수를 하였다. 이날 사무인계인수는 만녕 대종회장과 병철 위원장간에 이루어 졌는데 임회인으로는 병길 제1분과장, 병태 사무총장, 철형 재무담당역이 참석했다. 그런데 세보편찬위원회는 1999년 6월 10일 출범한 이래 당초 계획보다 1,600쪽이 늘어난 4,695쪽의 자손록과 부록 340쪽 등 총 5,000쪽으로 仁義禮智 4권을 1질로 발간하여 충분한 자료는 물론, CD-ROM까지 포함한 현대적 감각의 편집체제로 제작되었다고 보학계에서는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세보편찬에 참가한 일가는 총 2만 4,000여 명으로 각 문종별 수단신청 인원은 부사공과 712명을 비롯하여 참판공과 7,443명, 원외랑공과 129명, 감찰공과 4,583명, 대사간공과 2,988명, 사직공과 2,494명, 지평공과 175명, 종성공과 506명, 의열공과 4,818명, 계대미상 문종이 86명으로 총인원 23,934명이었습니다. 따라서 宗人이 내신 수

단금은 1억 1천 910만 5천 원, 세보신청인원은 2,302질로 4천 6백여 만 원, 그리고 세보편찬을 위하여 찬조하여주신 宗人은 59명으로 6천 7백 15만원에 달하였다.

이날 세보편찬위원회가 대종회에 인계한 결산 내

용을 보면 66,394,751원과 앞으로 세보 잔고 분(1,039질)까지 판매할 경우 약 1억 5천여 만원이 된다. 따라서 병철위원장은 이 금액 중 1억원을 대종회에 추천하는 장학기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만녕 회장에게 건의했다.



세보편찬 경과보고를 하고 있는 병태 사무총장



대종회 및 청장학회 임원(앞줄 좌로부터 준구, 병태, 승구, 만녕, 창무, 영범, 무탁, 무학, 뒷줄 좌로부터 무상, 범탁, 방무, 재무, 창무, 무석, 충범, 도녕, 병수, 선녕, 만녕, 덕녕 일기)

# 심당 이병린 인권변호사 흉상제막

## - 유신체제를 반대하는 민주회복에 앞장 -

지난 12월 10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林在承)는 창립95주년을 맞이하여 4·19혁명 이후 인권변호사로 이름이 높았던 고 심당(心堂) 이병린(李丙璣)변호사의 흉상제막식이 있었다.

고 이병린 변호사는 1964년 6·3 사태로 한일회담에 반대하는 많은 대학생들이 구속되자 '인권'에 관한 건의서'를 변협명의로 발표하고 계엄령해제와 구속학생의 석방을 요구했다가 회장(13대) 재직 중 구속되는 기록을 남겼다.

또한 1969년에는 3선 개헌에 반대하는 시국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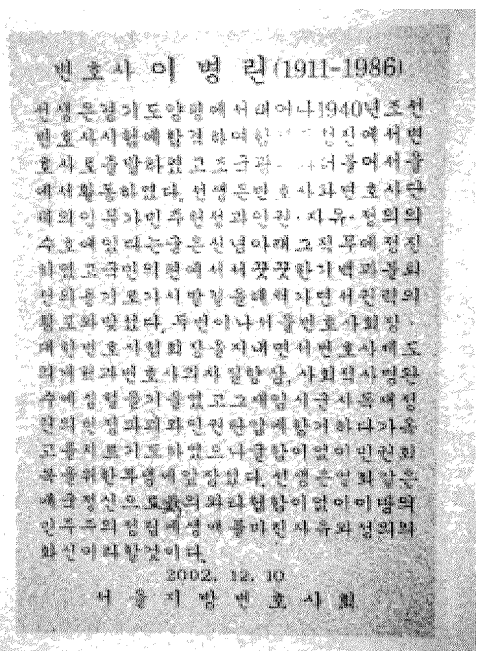
언문을 발표하고 1975년에는 유신체제를 반대하는 '민주회복 국민선언문'에 서명한 직후 다시 구속되는 등 민주회복을 위해 위정자들의 온갖 사회비리에 앞장서서 부정과 싸우는 시련의 삶 속에서 한평생을 살았다. 그 후 김전으로 낙향 후 은거생활을 하다가 1986년 지병으로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향년 75세로 타계하였다. 서울변협은 "이 변호사의 이 거룩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흉상을 변협회관에 세우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고 이변호사는

1911년 경기도 양평에서 우리 문종 명구(24세 鳴九, 참판공 문종)공의 3남으로 출생하여 1940년 법조계에 입문 후 13대와 1대 서울변협 회장을 지냈다. 슬하에는 태녕 등 4남 2녀가 있다.



변호사 회관(서울시 서초동)에 건립된 심당 병린 변호사 동상과 행정비문. 내용



# 기대되는 우리경제의 전망과 생명공학문제 등 폭넓게 피력

## 신년하례회 석상에서 승구 차관 새 정부 국정과제 소개 청장년회 발전에 헌신한 무상·재무씨에게 기념품 증정

해마다 실시되는 신년하례회가 1월 12일 서울 강남구 아세아타워에 위치한 도원에서 만녕회장을 비롯한 창무 청장년회장과 50여명의 종인이 모인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날 만녕회장은 신년인사를 통해 대총회가 전개하려는 장학제도 기금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청장년화장의 인사와 타우공 자손인 昇九

과학기술부 차관의 덕담을 대신한 새 정부 국정 전망에 대한 소개와 병태 사무총장의 대총회 동정 사항을 소개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승구 차관은 "선진계에서 늘 집안 내력에 대해서 깊은 관심이 계셨다"고 하고 "경륜이나 인생살이에서 건강이 제일이라고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그 동안 문중에 참여하지 못하였으나 앞으로는 관심을 갖

겠습니다. 오늘 자리를 빌려 새 정부의 국정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라는 동북아에서 중심국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 중국의 북경과 상해를 돌아볼 기회가 있었는데 상해에서 느낀 점은 도시규모나 첨단기술 등에서 무서운 속도로 발전해가고 있음을 볼 때 잘못하면 서울이 따라잡기 힘들 입장에 있지 않을까 염려할 정도"라고 했다. 또 "우리에게는 북한 문제가 다이내믹하게 진전되고 있으며, 월드컵 이후 일본과의 관계는 과거와는 달리 많이 개선되어 이제는 동반자적인 입장으로 인식되어가고 있음을 볼 때 중국의 기술 및 경제적인 발전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주변국보다 더욱 할 일이 많다는 것을 느낀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적으로는 과학 생명공학문제가 대두되면서 이 문제는 과학기술계와 보건 복지분야, 종교계 및 일반사회단체 등 모든 사람들이 협력해나가는 과제를 슬기롭게 풀어 나가는 과제가 남아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신년하례회는 그동안 청장년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임무를 수행한 무상 총무와 재무씨에게 기념품을 증정했다.



승구 차관이 새정부 국정과제란 제목으로 특별 강연이 있었다.



만녕 대총회장은 사법고시에 합격한 일가와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였다. (좌로부터 창무, 성범, 만녕, 지영, 박승자, 병태 일가들)

# 정부 국립중앙박물관장에 健茂씨 임명 차관급으로 격상된 최초 관장으로 취임



이 관장은 서울대학교 고인류학과를 졸업하고 국립 경주박물관 학예연구실장, 국립중앙박물관 고고부장, 국립광주박물관 등을 역임했다. 특히 우리나라 사학계 태두였던 두계(斗溪·丙巖; 1896~1989)박사의 손자이기도한 이 관장은 부친(春寧)은 농학자로 서울대 명예교수, 삼촌(泰寧)은 화학자인 서울대 명예교수, 친형(長茂)은 서울대 공과 대학장을 지낸 서울대 교수로, 학자 집안으로 이름이 나 있는 명문가 출신이다.

지난 3월 31일 정부는 국립중앙박물관장에 健茂(건무·56·감찰공 문중)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실장을 차관급으로 격상된 최초의 관장으로 승진 임명했다.

# 나란히 44회 사법고시에 합격 문증을 빛내

## -성범(사직공문중)과 지영(감찰공문중)양-



성범씨

사직공 문중의 性範(성범 30세) 군과 감찰공 문중의 芝始(지영 24세)양이 2002년도 44회 사법고시에 합격되어 문중일가들로부터 축하를 받고 있다.



지영씨

성범군은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와 컴퓨터 학과를 나왔다. 성범군은 창무 대총회 총무위원과 이명숙(明淑)부인의 1남2녀 중 장남으로 할아버지(隨亭 변호사 8대 우봉이씨 대총회장)의 대를 잇게 되었다.

지영양(24세)은 은광여고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나온 재원으로 감찰공 문중 문목(15세 打愚·翔)공 자손인 昇九(승구: 전 과학기술부)차관과 최승자(崔勝子)여사 사이에서 1남 2녀 중 막내로 사법고시에서도 상위권(석차 15등)으로 합격하여 주위 일가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있다.

### 2002년도

**동정** ▲대총회 총회(11. 3) 개최 한화 발딩 28층 대식당 ▲4/4분기 총무위원회 개최(12. 5) ▲昇九(과학기술부 차관) 총회 참석차 내방 ▲輝寧(주)세아제강 전무]인사차 내방 ▲智寧(총무위원·(주)泰成産業회장]인사차 방문 ▲萬寧(청장년회 감사)부친(丙德 대총회 부회장)古稀축하모임(11.30. 17:00) 코엑스 그랜드볼룸(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회장단 간담회(동서울 클럽)11.15 12:00참석자 만녕, 한구, 학구, 병덕, 병태, 대총회장학급안 토의 ▲정해복직(이사장: 총범)주최 자

선디너쇼 및 2002총년의 밤(12. 11.19:00) 인터콘티넨탈 호텔 그랜드 볼룸 ▲昌寧 [(주)興宣대표이사]방문 인사차 ▲泰寧(포항MBC사장)부친 고 丙隣번호사 흥상 제막식(12. 10) 서울번호사회 관 ▲昇九(과학기술부 차관)2녀 芝始(22세)양 44회 사법고시 합격 ▲昌茂(총무위원)장남 性範(30세)군 44회 사법고시 합격 **결혼** ▲根寧(총무위원)11월 9일 따님 윤희양 결혼식(구미 예식장) ▲秉茂(부회회장)아세아 그룹 회장)차남 仁範

군(신부 허동수씨 따님 기영양)결혼(12. 27:12:00) 인터콘티넨탈호텔 에식부 **시제** ▲청백리공 시제(11. 7) 구로구 개봉동산 1 ▲김

지당(강릉 陳鳳順 101세) 별세(11.14일) 혜화동성당 묘지(포천) 안장 **2003년도**

**동정** ▲청장년회(회장: 창무)신년하례회 개최(2003. 1. 12) 아세아 타운 도원 ▲世寧(참관공과 문경 중종회장)1. 16 정기총회 개최 ▲편찬위원회(위원장 丙七)편찬업무(12. 31부) 대총회에 인수인계(1. 7) ▲무영(통계청 총무과)성씨별 통계자료 협조 ▲참봉공(12세 世鈞)묘소 치산 정비후 봉헌제 거행(4. 5)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34번지

현장 ▲範仙(참관공 문중·大連 亞細亞 混泥土有限公司 고문)中國 大連 甘井區 華東路 136號 **결혼** ▲영무(英茂 청장년회)차남 범진군(신부윤석범씨)장녀 주연양) 2월 15일 오후3시 궁전회관 크리스탈홀 ▲明俊(감사)장남 범준군(신부 유지이양) 3월 29일 밀레니엄 웨딩홀 예식장에서 결혼식 ▲참봉공중종(회장: 寅寧)참봉공(12세·世鈞)묘소 治山告由祭(4. 5) 서울시 신림동 134번지 현장 ▲1/4분기 총무위원회 개최(3. 14)안건 사례평람 재판발행 건, 총무위원 및 고문 위촉, 중재공문중 계대정정 건 등 토의

# 게·시·판

**포 강하 문중**(회장:현녕)시제(11. 17) ▲음성 대사간 문중 시제(11. 7) ▲영모당(의령공 문중) 시제(11. 10) ▲고瑞峯 東寧선생 10주기 기념행사(12. 22) 문경 문창고등학교 교정 **부고** ▲丙萬(대사간 문중)

# 10대 성씨가 전 인구의 64.1% 차지해

본관 4179개로 金,李,朴,崔,鄭,姜,趙,尹,張,林 순서

우봉이씨는 6,388가구로 인구 2만 525명

— 우리나라 성씨는 286개, 귀화 외국인의 새로운 성은 442개 —



시

## 그리움

曉 峰

낙엽이 한 잎 두 잎 쓸쓸히 떨어지면  
그리운 님의 얼굴 살며시 떠오른다  
아련한 추억 속에 잊어야 할 그 사연이  
바람 따라 다가와서 조용히 나부낀다

낙엽이 한 잎 두 잎 쓸쓸히 떨어지면  
남몰래 불러보던 그리운 님 생각난다  
세월의 뒤안길에 돌아보면 안될 사랑  
잊으려 눈감아도 바람결에 들어온다

이 광녕 아호 효봉(曉峰) 인천출신, 서울교육대학, 연세대학교 대학원졸, 서울 성덕여자중학교 근무, 월간 문예사조에서 등단, 시집 '당신의 향기 묻어' 외 다수, 주소 서울 강동구 천호동 23-3 삼익 아파트 701동 512호 ☎ 02)3426-6961(집)

우리나라 성씨는 2000년을 기준(통계청 2000년 인구 주택 총 조사)으로 286성으로 나타났는데 이중 귀화인 성씨는 442개로 1.5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1월 28일 1985년에 이어 15년 만에 실시한 성씨 분포조사에서 이와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즉 우리나라 전체 성씨 중에는 김씨가 인구의 21.6%인 992만6000명으로 가장 많고, 이씨는 14.8%(679만5000명), 박씨 8.5%(389만5000명), 최씨 4.7%(216만9000명), 정씨 4.4%(201만명)의 순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본관별로는 김수로왕을 시조로 하는 김해 김씨가 한국인

며 본관별로는 한양 김씨, 장지 김씨, 제천 백씨, 등 모두 15개가 새로 생겼다.

### 100명 미만 성씨만도 42개

286개 성씨중 인구가 1000명 미만인 성씨는 112개(39.2%)에 달하는 등 희귀 성씨가 적지 않았다. 특히 인구가 100명 미만인 성씨도 42개로 岡田(강전)씨, 雷(뇌)씨, 長谷(장곡)씨, 京(경)씨, 氷(빙)씨, 杉(빙)씨, 父(예)씨, 汗(증)씨 등이 있었다.

특정지역별로 많이 사는 성씨로는 10대 성씨 가운데에는 조씨가 서울, 인천, 경기, 충남 등 수도권 및 중부지방에 많이 살고 있었고 임씨는 광주,

합치면 976만6000명으로, 1000만명 가까운 인구를 차지하는 셈이다. 그 다음으로는 경주 김씨가 174만명, 경주 이씨가 143만명, 전주 강씨가 97만7000명, 광산 김씨가 83만7000명, 파평 윤씨가 71만4000명, 청주 한씨가 64만3000명 순으로 인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성씨 본관별로 거주하는 지역을 보면 광산 김씨가 광주, 대전, 전남, 전북에 주로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안동 권씨는 대구 강원 및 경북에서 거주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따라서 호남 본관을 가진 사람이 호남에 살고, 영남권에 본관을 가진 사람은 영남권에 사는 경향을 띄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전주 이씨는 서울, 경기도, 경주 김씨는 충남 충북에, 금녕 김씨는 부산 경남에서 거주하는 비율이 많았다. 그러나 김해 김씨와 밀양 박씨는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는 지역 없이 골고루 흩어져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집성촌도 곳곳에 아직 남아있어

급격한 도시화에도 불구하고 특정 성씨가 흩어져 사는 집성촌이 아직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우봉이씨 시도별 가구 및 인구분포 내용

| 시도별     | 구 분 | 가 구 수 | 인 구    |
|---------|-----|-------|--------|
| 총 계     |     | 6,388 | 20,525 |
| 서울특별시   |     | 1,765 | 5,610  |
| 부산광역시   |     | 146   | 477    |
| 대구광역시   |     | 340   | 1,112  |
| 인천광역시   |     | 406   | 1,304  |
| 광주광역시   |     | 10    | 40     |
| 대전광역시   |     | 327   | 1,110  |
| 울산광역시   |     | 55    | 118    |
| 경 기 도   |     | 1,555 | 5,305  |
| 강 원 도   |     | 291   | 903    |
| 충 청 북 도 |     | 402   | 1,532  |
| 충 청 남 도 |     | 428   | 1,252  |
| 전 라 북 도 |     | 46    | 125    |
| 전 라 남 도 |     | 33    | 107    |
| 경 상 북 도 |     | 424   | 1,220  |
| 경 상 남 도 |     | 60    | 210    |
| 제 주 도   |     | 10    | 30     |

자료 : 통계청(2000. 11. 1) 전국조사 집계 자료

10명중 1명 꼴인 412만 5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2000년 현재 우리나라 사람이 쓰는 성씨는 모두 286개와 귀화인이 창시한 성씨는 442개, 이를 모두 합치면 728개 성씨, 따라서 본관별로는 4179개인이 나타났다. 특히 새로운 성씨로는 京(경), 氷(빙), 杉(빙), 葉(엽), 父(예), 汗(증)씨 등 11개 성씨가 새롭게 나타났으

대전, 충남, 전북에, 김씨는 부산, 경남, 제주에, 장씨는 대구, 충북에, 박씨는 울산, 전남에 최씨는 강원도에 거주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성씨 본관별로 인구수를 보면 1위인 김해 김씨는 412만5000명(9.0%)이고, 2위는 밀양 박씨로 303만1000명, 3위인 전주 이씨는 261만 명이었다. 이들 3개 성씨 본관별을

公認 法務法人

# 和 仁

대표 변호사 李 永 範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2-7  
태양빌딩 5층

TEL : 3486-3366(代)  
FAX : 3486-5876  
공중실 : 3473-2402-3



사단 正海복지  
법인

이사장 이충범(변호사)

해외지원 사업부  
장애인복지 사업부  
청소년복지 사업부  
의료복지 사업부  
회지 발간 사업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4동 1697-1 삼덕물산 4층  
TEL : (02)592-5454 / FAX : (02)592-0463  
http://www.junghae.org